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견우와 직녀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주제** : 책임감

핵심어 사랑, 칠석, 목동, 유래담, 은하수, 세시풍속, 길쌈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여름 절기인 칠석에 대해 배워 본다.
• **요소** : 칠석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배운다.
• **단어** : 견우, 직녀, 칠석
• **표현** : 견우와 직녀는 칠석에 만나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견우와 직녀’예요.

견우는 하늘나라에서 소를 몰던 목동이에요. 직녀는 옷감을 만들던 공주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어째서 하루만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마음이 착하고 얼굴도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옷감을 잘 만들어서 직녀라고 불렀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직녀가 만든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하늘나라에 꽃향기로 가득한 봄이 왔어요. 직녀는 들판의 예쁜 꽃들을 꺾어 와서 옷감에 수놓기로 결심했어요. 직녀는 대궐 밖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때 멀리서 소 떼를 몰고 가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소를 몰며 풀잎으로 피리를 불었어요. 직녀는 풀잎피리 소리에 푹 빠졌어요.

“아, 풀잎피리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풀잎피리를 불던 사내도 직녀를 보자마자 직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는 소 떼를 모는 목동, 견우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보자마자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직녀의 신랑감을 찾던 임금님도 소를 열심히 돌보는 견우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둘은 하늘나라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견우와 직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직녀님, 날씨도 좋은데 꽃구경이나 갈까요?”

“견우님, 소를 돌봐야 하지 않아요?”

“소는 들판에 풀어 놓으면 알아서 잘 지내요.”

견우와 직녀는 해야 할 일도 잊고 매일매일 산과 들로 놀러 나갔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옷감은 언제 만들고, 소는 누가 돌보라고 저렇게 매일 놀러 다닐까?”

“허허,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니까요. 곧 다시 일할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처음에는 견우와 직녀가 노는 모습을 예쁘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옷감이 다 떨어져서 옷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소들이 풀을 못 먹으니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화가 났어요.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불러 두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너희 둘은 당장 대궐 밖으로 나가 따로따로 살아라!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살며,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은 일년에 딱 한 번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날은 바로 음력 7월 7일인 칠석이었어요. 두 사람은 칠석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칠석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곧바로 은하수 강으로 달려갔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은빛 강물은 넓고 깊어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엉엉 울었어요. 두 사람이 흘린 수많은 눈물은 숲과 마을을 전부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잖아.”

“이건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야.”

땅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칠석이 되면 많은 비로 물난리를 겪어야 했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 해 칠석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와 머리를 맞대어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님! 직녀님! 어서 은하수 강을 건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 덕분에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견우님! 흑흑, 보고 싶었어요!”

“직녀님, 그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만난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 아래 보슬보슬 비가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사람들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매년 칠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덕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칠석이 되면 비가 와요. 두 사람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 때문인가 봐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널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지요? 맞아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오작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견우와 직녀는 칠석에 만나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에요. 옛날에는 칠석에 여자들이 옷감을 짜는 길쌈을 했어요. 직녀처럼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칠석이 지나면 축축해진 옷을 말리기도 했어요. 칠석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는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해봐요. 학교에서도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